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서 보충안 (로마, 2025)

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위원회(IASCUFIO: Inter-Anglican Standing Commission for Unity, Faith and Order)

요약

2024년 대림절에 발표된 IASCUFIO의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성공회 신자들이 세상 속에 새 창조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구상합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는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며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적, 권역적(regional),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정직성과 실효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12월 로마 회의에서 마련된 이 보충 자료는, 우리의 보고서에 대한 응답을 경청하며 얻은 IASCUFIO의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2026년 6월과 7월에 열리는 제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회의의 검토를 위한 몇 가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airobi-Cairo Proposals)은 우리 공동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긴급한 요청으로 요약됩니다:

- **1930년 이후 공동체적 상통(communion)의 구조 내의 발전을 인정하십시오.** 1930년 람베스 회의가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을 때, 그것은 모든 성공회 교회들이 잉글랜드 성공회를 어머니 교회로 하여 그 주위에 모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1968년 이후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성공회를 포함한 모든 성공회 교회들은 이제 자매 교회들입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헌장이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에 대한 최신의 새로운 설명이 있어야 모든 성공회 신자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 사목, 그리고 선교에 대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일부 교회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상통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인 공동체적 상통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공동체적 상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Instruments of Communion)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살아있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회원 교회의 결정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적 상통을 표현하고 가능한 최고 수준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열에 대해 정직해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격려합니다.

- **공동체의 리더십이 공동체적 상통의 모습과 닮도록 보장하십시오.** 이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와 관구장회의(Primates' Meeting), 그리고 램베스회의(Lambeth Conference)가 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고유한 직무를 보완하고 완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는 평신도의 목소리와 리더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기여가 더욱 강화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관구장들은 이미 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목을 보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공유된 사목의 평등한 동료관계적(collegial) 성격이 더욱 발전될 것을 제안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 증언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높여주고, 지도자들 사이의 평등한 동료관계성(collegiality)를 증진하며, 에큐메니칼 현장과 세속 사회 모두에서 성공회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식민주의의 잔재를 털어내는 동시에,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무가 증언하고 있는 공유된 신학적·성례전적 유산을 찬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 속에서도 모든 성공회 교회들이 폭력과 절망으로 찢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치유의 말을 전하고 몸소 실천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서문

1. 2024년 대림절에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이 발표된 이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 위원들은 접수된 공식 답변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IASCUFO는 소위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이라고 불리는 관구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하는 세계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임 캔터베리 대주교인 사라 멀렐리(Sarah Mullally)를 비롯하여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 2025년 12월 로마 회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화 내용과 더불어, 최근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Dicastery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에서 발행한 「로마의 주교: 에큐메니칼 대화에서의 수위권과 시노드성(The Bishop of Rome: Primacy and

Synodality in the Ecumenical Dialogues)」(2024)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함께 성찰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회가 변화하는 상황과 새로운 식별, 특히 타 그리스도인 및 교회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의 주장을 포함한 교황권 신학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세계성공회공동체 역시 일치로 향한 성령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기 위해 그 역사와 주장을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는 지난 100년 동안, 특히 모든 회원 교회의 평등함에 대한 새롭게 떠오르는 이해를 통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식민주의적 습관은 모든 측면에서 떨쳐내기 어렵지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전 12:22)"는 말씀처럼 어느 회원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자매이며, 모든 교회는 서로 간의 공동체적 상통관계에 헌신하도록 독려받습니다.

4.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틀 안에 이 내용들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의 이러한 발전의 역사와 신학을 상세히 기술합니다(NCP §§24-71 참조). 이러한 신앙과 직제에 기초하여,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질문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성공회가 함께 살아갈 다음 시대를 위한 결실 있는 프레임워크와 잠정적인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공회정신(Anglicanism)의 은사는 여전히 우리의 원칙적인 "가변성(variability)"(NCP §60 이하 참조)에 있으며, 이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세상에 긴급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희망을 드리는 일입니다.

-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이며, 그 **일치**는 성령의 선물이자 동시에 각 세대가 응답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성공회 신자들은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동시에, 더욱 완전하고 충만하며 가시적인 공동체적 상통(참조: NCP, §§25-29)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우리의 현재 분쟁들은 **거룩한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시에 가능한 한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중하고 자비롭게 경청하고, 양심에 따른 불일치를 존중하며 표시하고, 서로를 강요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분열로 인해 상처 입은 친교를 발견하는 중에도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에 헌신합니다(NCP §§40-48 참조).
- 우리는 **보편적(catholic) 증언**을 향해 부르는 성서와 고대 교회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간 혹은 교회 내부의 분쟁과 식별이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그런 공간도 포함됩니다.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는 성례전적이고 시노드적인 공동의 삶을 통해 지탱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은총을 입은 순례자들의 혼합된 몸입니다(NCP §§49-57 참조).

- 우리는 또한 **사도적 신실함**으로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진리이며, 교회의 주교들과 공의회들을 통해서 분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도적 성격은 민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새롭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선포될 때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사도행전 1:8)에 이르도록(NCP, §§58-71 참조).

5. 이러한 교회의 고대적 표지들(marks of the Church)에 기초하여,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의 두 가지 핵심 제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1 안: 성공회 공동체에 대한 개정된 설명

6. 추가적인 성찰과 대화를 거친 후에도, 우리 위원회는 – 세계성공회협의회와 관구장들의 상임위원회와 더불어 – 세계성공회공동체의 현재 구조와 실상을 반영하도록 공동체에 대한 기술(설명)을 갱신하자는 우리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NCP §73 이하 참조).

(i) 공동체적 상통의 특성

7. 우리 사이의 완전한 공동체적 상통은 모든 성공회 교회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추구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공동체적 상통(친교 koinonia)이 갖는 성서적, 신학적, 성례전적, 사회적, 그리고 선교학적 함의는 성공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서 우리의 사고와 기도, 그리고 행동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깊이 고취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신앙과 직제 안에서의 완전한 공동체적 상통을 마치 이미 성취된 것처럼 단순히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임의적인 결사체나 연맹체로 물러설 자유도 없습니다. 세례와 공통된 신앙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적인 일치와 보편성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성공회의 유대(bonds)로서 다음을 강조합니다. (i) 전례와 교회법을 포함한 신앙과 직제에서의 공유된 유산, (ii) 선교에서의 상호 봉사, (iii) 공동의 협의(common counsel)를 함께하겠다는 헌신, (iv)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캔터베리 주교좌와의 역사적 연결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끈들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NCP, §76) 공동체적 상통의 길을 따라 걷게 하며,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니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히 10:25)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8.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신앙과 직제를 수호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복음의 정통적 진리를 발견하고 표현해야 하는 교회의 긴급하고 영구적인 과업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나 단순한 주관적인 의도를 결코 내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이상을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에 찬 방식으로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의 부록에 기록했듯이, "공동체의 교회들이 하나의 신앙과 직제를 수호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에베소서 4:13)를 향해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위의 §51 참조)." 완전한 공동체적 상통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기도하셨고 우선순위에 두셨던 일입니다(NCP, §17; §76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일치가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우리의 차이와 분열이 우리를 압도했다고, 혹은 그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계속 전진합니다. 우리는 자비 안에서 우리의 차이점들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NCP, §§35-39)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 이 일을 수행하며, 설령 이것이 "거리를 두고"(NCP, §§44-48) 걷는 것을 수반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동행은 우리가 "서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공동체적 상통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노력하는 것"(NCP, §76)을 도울 것입니다.

(ii) 캔터베리와의 역사적 연결

9. 1930년 램베스회의에서 모인 주교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를 “캔터베리 주교좌와 공동체적 상통 안에 있는 교구, 관구 또는 지역 교회들의 친교”(결의안 49호)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성명은 주교들이 그들의 회칙(encyclical)에서 썼듯이, 세계성공회공동체를 “잉글랜드 성공회와의 완전한 공동체적 상통”에 의해 정의되는 교회들의 모임으로 보았던 관점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NCP §§12, 74, 강조 추가). 그러나 이후 한 세기 동안, 성공회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에는 중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1968년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설립과 1978년 관구장회의(Primates' Meeting)의 설립이 그러합니다. 이제 세계성공회협의회 헌장에 명시된(NCP §§70, 74)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공동체적 상통의 기구들은, (5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제1기구인) 캔터베리 대주교 및 (1867년부터 시작된 제2기구인) 램베스회의와 동반자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10.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이 관찰하듯, 잉글랜드 성공회와 캔터베리 대주교는 결코 “갈등과 불일치 속에서 상호 법원이나 단독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는 세계성공회공동체 회원 교회들의 “평등성과 상호성”에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NCP §63; §78 참조). 대신, 세계성공회공동체는 1888년 시카고-람베스 4개 조항의 표현을 빌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 교회의 일치 안으로 들어온 열방과 민족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그 관리 방법이 지역적으로 적응된 역사적 주교직”에 대한 초기부터의 관심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NCP §§57, 60). 중앙 집중화되지 않고 강제력이 없는 평등한 동료 주교단(college of equals)으로서 “주교들의 공동 협의(common counsel)”를 거친 풍부한 경험(1930년 램베스회의 결의안 49호; NCP 부록 참조)을 바탕으로, 1968년과 1978년의 램베스회의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서 세계성공회협의회와 관구장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이 네 가지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은, 선교의 일치를 위한 기초로서 성서와 우리의 공통된 전통에 관한 폭넓은 합의에 기반한 성공회의 신앙과 직제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11. 지난 세기 동안 이루어진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이러한 진화를 기억하는 것은, 모든 성공회 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캔터베리 주교좌와의 살아있는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결을 “역사적(historic)”(주의: 과거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historical’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력을 갖는 역사적이라는 의미로 historic임)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주교직’(historic episcopate)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교회의 삶을 형성하는 고대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캔터베리와의 역사적 연결은 동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i) 공동체적 상통 내 많은 교회들의 선교적 기원, (ii) 고대 사도성의 상징으로서 캔터베리 주교좌가 갖는 위치, (iii) 그리고 비록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시 말해, 수용자의 수용이 있어야 실현되는) 인격적이고 사목적인 선물이기는 하지만,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 중 하나로서 캔터베리 대주교와 맺고 있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NCP §§76, 78-79, 85-86). 그러므로 캔터베리 대주교는 “형제자매 및 동료들 사이의 형제 또는 자매로서, 특히 공동체적 상통의 신앙과 직제에 대해 동료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램베스회의와 관구장회의라는 주교단 안에서 봉사하고 격려하며 설득하도록 초대받은 존재”입니다(§§86, 78; §§85, 62 참조).

12.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자체의 치리체제(polity)와 교리(doctrine)를 가진 특정

교회의 관구장으로 봉사하며, 그 교리와 치리체제는 세계성공회공동체의 다른 모든 교회와 온전히 공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 교회가 캔터베리와 완전한 공동체적 상통을 이루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NCP, §63; §7, §79 참조).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성공회 신자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체적 상통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IASCUFO는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의 많은 네트워크가 캔터베리나 잉글랜드 성공회, 또는 그 어떤 다른 회원 교회에 의해서도 중심화되거나 조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NCP, §§56, 68 참조). 이러한 다중심적(polycentric) 그룹들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세계성공회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 세계성공회공동체가 캔터베리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성공회가 성공회 가족의 신앙을 단독으로 짊어질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적 상통(communion)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모든 이에 의해 평등하게 응답되어야 하며, 지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의 교회들은 용인 가능한 최저 수준의 상통이 아니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공동체적 상통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NCP §31 이하 참조). 여기서 다시 한번, 일치를 위한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무는 다른 도구들을 보완합니다.

제2안: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의 리더십

14.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의 두 번째 핵심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질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구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권력(regional) 관구장들의 도움을 통해,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인격적이고 사목적인 직무가 “보조를 받고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2024년 관구장회의에서 나온 제안으로, 현재 제시된 두 번째 제안의 형태를 갖추는 데 기여했습니다(NCP, §82; §63 참조).

15. “상통의 공동체의 리더십은 상통의 공동체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NCP, §85)고 주장하는 것은, 성공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 정의, 맥락성(contextuality), 그리고 선교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등과 상호 존중의 외적인 실행으로서, 서로 공유하는 부르기와 소집하기와 대표하기를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진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NCP, §§63, 68, 74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잉글랜드 성공회를 포함한 세계성공회공동체 전체는 과거의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넘어 계속 성장하고, 세계 그리스도교의 다중심적 특성을 깊이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NCP, §§18-21 참조). 여기서 우리는 나이로비-카이로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i) 공동체적 상통의 첫 번째 도구를 동료관계적(collegial)으로 공유하기

16. 우리가 받은 유익한 피드백을 고려하고, 세계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회 전체 및 사라 대주교와 추가로 대화를 나눈 후, IASCUFO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순번제 의장직”에 관한 두 번째 제안의 첫 부분을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84). (다양한 관점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와의 잠재적 경쟁 관계, 의장의 ‘면모’에 있어 지리적 혹은 신학적 다양성의 비일관성(inconsistency), 그리고 사무처의 자금 조달 및 인력 배치의 잠재적 불규칙성에 대해 타당한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관구장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권역 관구장들을 초청하여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를 동료적인(collegial) 방식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배치를 일종의 협의회(council) 형태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3년에서 6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7. 우리는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협력적이고” 동료적인 사목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전에 언급했으며, “적어도 2016년 이후로 관구장들이 관구장회의의 세션들을 번갈아 가며 주재해 왔고, 관구장 상임위원회가 사전에 의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다”고 관찰했습니다(NCP, §83). 또한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권역(regional) 내의 교회들에 대해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이 사목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2025년 1월 6일)에 저스틴 대주교는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부재 시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직무의 모든 측면을 인계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들은 캔터베리 대주교 직무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발전들이었으나, 하지만 그들은 한 대주교의 식별에 의존하는 잠정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18.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발전들을 공식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들을 확인했습니다:

- 관구장회의 상임위원회(권력 관구장들로도 불림)는 지구적 가족을 섬기는 첫 번째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로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목적 직무(pastoral ministry)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관구장 협의회에 속한 각 관구장은 새로운 관구의 출범이나 신임 관구장의 취임식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러하듯이)

세계성공회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에, 해당 관구장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세계성공회공동체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성공회공동체의 모습이 항상 잉글랜드 성공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의 다각화된 면모' 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 캔터베리 대주교는 대부분의 에큐메니칼 상황에서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추정적(presumptive: 특별한 반대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인정된다는 의미) 대표로서 계속 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NCP, §88 참조).
- 이러한 공유된 직문의 실질적 형태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그 대주교의 동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성장해 나감에 따라 시간을 두고 식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5개 권역(regional) 구성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 만약 이 제안이 대주교와 지역 총대주교들에 의해 수용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 구조와 명칭과 권한 범위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가 이러한 발전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ii) 세계성공회협의회(ACC) 의장(President)

20. 제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는 또한 현재 캔터베리 대주교가 맡고 있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 프레지던트(president)라는 의장 역할(NCP §85 참조)을 재검토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세계성공회협의회 의장은 주로 상징적이고 직무상(ex officio) 역할을 수행합니다(§84). 추가적인 성찰 결과, IASCUFO는 프레지던트라는 직함이 의장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인 체어(Chair)와 부의장을 의미하는 바이스-체어(Vice-Chair)의 직위와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수준의 복잡성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삶 속에서 “프레지던트로서 의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세계성공회협의회 헌장은 세계성공회협의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의장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1조). **세계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우리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는 의장의 역할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상통의 첫번째 도구로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성공회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다른 5명의 관구장 위원들과 더불어, 발언권과 투표권을 모두 가진 세계성공회협의회 및 그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남을 것을 권고합니다.

21.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프레지던트로서 의장의 역할을 폐지함으로써 세계성공회협의회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체어(Chair)로서 의장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변화는 상임위원회 내의 평신도 리더십 강화에 관한 IASCUFO의 제안 및 논거와 부합합니다(NCP, §94).
-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미 5명의 관구장 위원들을 포함한 세계성공회협의회와 그 상임위원회와 동료적인(collegial)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상태는 공동체의 모든 교회들을 정직한 중재자이자 일치와 봉사자로서 평등하게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기구들 중에서도 특히) 세계성공회 사무국(Anglican Communion Office)의 업무를 저해합니다

22. 현장의 다른 개정안들과 더불어 프레지던트로서 의장의 역할을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 회의의 몫이 될 것입니다.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에서 언급했듯이(§89 참조), 캔터베리 대주교의 견해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변경될 때까지 그녀는 세계성공회협의회 의장(president)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23. 성공회 신자들이 아침에 깨어나 자기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대개, 그리고 마땅히,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parish)와 교구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가족, 이웃, 기업, 그리고 국가와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보고 섬기며, 복음을 듣고, 치유와 교육, 정의 등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성공회 신자들이 – 우리의 예배와 선교의 표지들(marks of mission), 그리고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체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통해 – 이러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중 공동체적 상통의 구조나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찰하는 것을 일상적인 업무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전 세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상통을 나누는 방식을 강화하거나 혹은 저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4. 로마 회의를 통한 앞선 개선 사항들에 비추어 이제 장차 수정될 *나이로비-카이로 제안들(NCPs)*은, 성공회 신자들이 세상 속에 새 창조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구상하고자 시도합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는 일치로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적, 권역(regional)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진실하고 온전함(integrity)과 실효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5. 이 제안들은 우리 공동 삶을 위한 세 가지 긴급한 요청으로 요약됩니다:

- 1930년 이후 공동체적 상통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인정하십시오.
- 일부 교회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상통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하되, 실재적인 공동체적 상통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화하도록 부르신 것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 공동체적 상통의 리더십이 공동체적 상통(communion)의 모습과 닮도록 보장하십시오.

26.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 증언의 정직성을 높이고, 지도자들 사이의 동료관계성(collegiality)을 증진하며, 에큐메니칼 현장과 세속 사회 모두에서 성공회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 속에서도 모든 성공회 교회들이 희망과 치유의 말을 전하고 몸소 실천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27. 만약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 현상 유지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정직하고 건설적으로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더 격렬한 분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인 시험과 탐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예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몸의 치유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구조들의 적절한 잠정성을 인식하면서, 그 구조들을 가볍게 붙들어야 합니다.

28. 마이클 램지(Michael Ramsey)가 그의 위대한 저서 『복음과 보편교회』(1936년 출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기 25년 전)의 끝부분에 인상 깊게 썼듯이, 성공회정신(Anglicanism)의 “자격 증명”은 “그 영혼 안의 긴장과 진통을 동반한 미완성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고 무질서하며, 깔끔함과 논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교의 가장 훌륭한 전형’으로 추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짐을 통해, 그 곳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NCP, §60 참조).

29. 앞으로의 몇 달과 몇 년을 바라보며, 세계성공회공동체의 교회들이 (공동체적 상통의) 네 가지 도구들에 의해 확립된 틀 안에서, 적절한 폭의 자유(latitude)를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치”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데까지”(에베소서 4:13)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